

I. 시작하는 말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룻을 “()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을 ()으로 인정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부끄러움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룻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II. 중심 말씀

1.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변할 수 있습니다.

룻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처음 룻은 모압 여인, 과부,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는 박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을 바라보며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룻의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붙드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다윗 왕의 조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눔 질문)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한 주간 어떻게 나아갔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2.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단지 내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박복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던 룻이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뿐 아니라 나오미의 삶까지 회복시키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본래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절망했지만 룻의 삶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이 세워지고, 나오미는 다시 ()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이 될 것입니다.

나눔 질문)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3.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룻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에는 네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룻입니다. 룻은 결코 자신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충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 손에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 질문) 나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III. 정리하는 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모압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갔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한 점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남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여쭙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꼭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일명으로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리로

찬양으로 영광돌려 만왕의 왕께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의 삶 나누기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찬449)

- 1)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 2)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 3)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 4) 우리 받은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 5)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후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겸손히 주를 섬길때(찬 212)

-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 2)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 3)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